

2016 년 8 월 7 일 설교: 클라이브 피어슨 목사 (번역 Francis Kim)

히브리 11 장 1-3, 8-16, 누가복음 12 장 32-40

옛날옛적에 나는 어렸습니다. 나는 머리카락이 가득있었고- 지금의 기준에 의하면 그 당시의 유행을 따랐던 머리는 길었습니다. 또한 내 첫 여권을 10 년동안 장식했던 자랑스런 콧수염의 소유자였습니다. - 그리고 그건 나를 멕시코 산적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세월은 흘러흘러 어느새 ...

그리고 나는 역사학 우등학위 과정을 밟고 있었습니다. 내가 수강하던 과목중 하나는 내가 유일한 학생이었습니다: 그 과목은 오늘날 그렇게 관심을 받을 것 같지는 않은- 리처드 후커와 교회정치법이었습니다. 후커는 16 세기 성직자로 엘리자베스 1 세의 혼란기에 영국의 교회법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 과목이 내가 처음 신학의 맛을 본 과목이었고 내 선생님은 내가 세상에서 나의 자리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는 동안 내게 다른 여러권의 책을 추천하곤 했습니다.

그 책들중 한권은 게라드 휴라는 성직자가 쓴 책이었습니다. 그 책은 놀라움의 하나님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크리스천 영성에 대해 일종의 스스로 학습해가는 책이었습니다: 매 장의 마지막에 스스로 영적인 연습을 하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 연습중 내가 가장 잘 기억하는 것은 시계바늘이 없는 시계얼굴이었습니다. 휴는 그의 독자들이 그들 스스로 시계바늘을 넣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인생이 가는 방향을 나타내도록 초대했습니다.

그는 여러분들의 생일의 숫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여러분들의 나이에 대해서 그리고 예배이후에 같이 생일 노래를 불렀는 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휴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우리를 어디에 놓고 보는지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조금 돌아보도록 요구하지만 그의 초점은 현재와 미래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시계바늘을 놓도록 하면서 휴는 또한 어떻게 우리가 다음의 문장을 완성할 것인지를 생각해보게 합니다: 이제 할 바로 그 시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빈칸을 채웁니다.

휴는 직업들을 바꿀 바로 그 시간이라고, 바다의 변화를 그리고 해안가로 올라갈; 휴가를 떠날 시간; 누군가가 매일의 많은 일들을 해야할 바로 그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휴는 우리가 이 시계를 이용하게 만듦으로써 우리 신앙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각에서 삶을 사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영적인 연습에는 시간의 이해에 대한 다른 두가지 방식이 숨어 있습니다. 그 시계 자신이 첫번째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직선 상의

시간으로 한순간이 다른 순간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종류의 시간은 우리가 달력에서, 수첩에 앞으로의 일을 계획하는 등의 일을 통해 나타납니다. 이것은 접혀져 있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것은 과거로부터 현재를 통해 미래로 나가는 이미 여기 그리고 지금을 관통하는 시계바늘 같이 진행을 합니다. 이것이 일종의 첫번째 시간- 휴가 이용했던 우리가 달력의 시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카이로스라고 부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스어가 그 어원인 카이로스의 뜻은 “...할 바로 그 시간”; “...할 바로 그 기회”; “ 이제 일어날 필요가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그 시간” 입니다. 이것이 달력의 시간과는 다른 카이로스 시간입니다.

이제 이 시점에서 우리는 누가복음으로 돌아옵니다. 모든 복음서들 가운데 누가복음은 시간과 시기와 관련해서 가장 자각이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많은 관계로 때때로 누가는 역사가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 것은 맞는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은 왜 그가 그렇게 말하는 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누가는 낱짜를 쓰기를 좋아합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쓰는 것과 같지는 않지만- 마치 우리가 존 하워드는 1996년 3월 11일부터 2007년 12월 3일까지 케빈러드는 2007년 12월부터 2010년 6월 24일까지 그리고 다시 2013년 6월 27일부터 같은해 9월 18일까지 총리였다는 등등 처럼...

누가는 ” 헤로드 왕 시대에 즈카리아라는 이름의 성직자가 있었다”; “그 당시에 아우구스투스 황제로부터”, “ 키리니우스가 시리아의 통치자였을 때” “ 티베리우스 황제 재위 15년에, 유대의 총독은 폰티어스 필레잇이고 갈릴리의 통치자는 헤로드이고 그의 형제인 필립은 이투래아와 트라초니티스의 통치자 그리고 리시아니아스는 아빌레인의 통치자였고 그 기간의 최고성직자는 아나스와 카이아파스” 라고 말합니다.

다른 어떤 복음서도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누가는 일종의 달력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복음의 예수님은 여러번 군중을 불러서 “ 시대의 징조들”을 읽게 합니다. 첫번째 이야기에서 시대의 징조들을 읽게하는 요청은 누가를 거의 기상 예보관으로 보이게 합니다. 예수님은 군중에게 말합니다. “ 여러분은 서쪽에서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즉시 비가 올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남쪽에서 바람이 부는 것을 보면 엄청난 더위가 올거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곧 그렇게 됩니다. 위선자들이여! 여러분들은 땅과 하늘의 모습을 어떻게 해석하는 지는 압니다. 그러나 왜 이시대의 징조들은 어떻게 해석하는 지 모르는 겁니까.”

여기서 누가는 시간의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 카이로스. 바로 시기, 기회의 시간, 하나님이 예정한 시간. 누가의 예수님은 사람들이 아는 것들의 표면 아래의 것을 보고 대신 하나님의 시간을 생각합니다. 이 복음의 여러 이야기의 중요한 장면에서, 누가는 또한 “ 오늘”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

났다 라고 선언합니다- 마치 “오늘 자케오스의 집에서 구원이 일어났다” - 자기가 가진 것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워준 수석세금 징수원- 와 같은 식으로..

그리고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동안에도 시간은 켜각켄각 가고 있고 , 말하자면, 여기서 ‘오늘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치유의 시간, 하나님의 화해의 시간, 구원의 시간에 더 가깝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누가복음만이 복음을 통해서 시간의 이중성- 달력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누가만이 예수님의 승천이야기를 이야기한 유일한 복음사가입니다. 그리고 그는 누가복음이 마지막과 그의 계속되는 사도행전의 처음에서 이사건의 두면을 이야기합니다. 부활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과 베타니에 계십니다. 그들을 축복하면서 예수님은 물러나고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언제 다시 와서이שראל 왕국을 복원할 것인지 물어보기 바쁩니다. 예수님은 승천했고, 구름은 그를 데리고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우리는 오늘날 왜 이런 종류의 의야기가 만들어 졌는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비디오 증거를 갖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보고 전체가 말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러나 승천은 크리스천 신앙에세 예수님의 탄생, 일생, 가르침 , 죽음 그리고 사망처럼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는 것과 성령을 통해서 그는 더 이상 1 세기의 팔레스타인에 묶여있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 승천때문에 여러분이 이 아침에 여기 있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의 목적을 위해서 이것은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대의 사이에서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설명을 해 보죠. 초대교회 크리스천들은 그리스도의 경험과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계속적인 희망의 관점에서 시간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과거는 이제 예수님이 그들 안에서 살았던 동안의 지금의 시간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처형되었고, 다시 살아 나셨고, 승천하셨으며 제자들은 하나님의 미래의 시점에 인간의 역사를 모두 정리하고 그가 다시 두번째로 올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복귀는 우리가 정말 크리스천 신앙안에서 기대했건 것처럼 다시 일어 나지 않았고, 우리는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수님의 처음 오심과 미래에 다시 오시게 될 사이의 이 시기가 있습니다. 마이클 얼은 저 아래 보랄에 있는 젊은 목사 중 한분이고 때때로 새 찬송가를 만듭니다 - 때로는 가사만 때로는 가사와 곡 모두를. 우리는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그의 찬송가 중 하나를 부를 겁니다. 그 것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 “여기 시간의 중간에”. 그것은 지금 우리 삶의 시간, 우리 인생의 시간, 하나님의 목적들을 실현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는 시간입니다. 이러한 목적들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왕국,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의 화해, 새 천국 그리고 새 세상.

그리고 그 시간이 오기까지 우리는 “기다립니다”. 오늘 아침 누가복음의 독서는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확히 언제 이 기다림이 끝날지 모릅니다.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대못한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처음 들은 사람들과 누가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죽는 날 밤일 수도 있고, 그것은 마치 한밤에 도둑이 들어오듯 그렇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는 다른 종류의 기다림들이 있음을 압니다. 여기 누가 복음에서의 기다림은 단지 시간을 보내는 기다림이 아닙니다. 시간을 낭비하거나 시간을 죽이는 기다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행동을 취할 준비를 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등불은 켜있어야 하고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 기다리는 행동은 시간으로 무엇을 하는 것입니다. 계획적으로.

하나님 왕국을 만들기 위해 기다림이 무엇을 말하는 지 설명하는 다른 방식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서 1은 그리스도에게 희망을 건 사람들은 이방인, 방명자들, 세상을 떠도는 사람 같다고 이야기 합니다.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모두 이민자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이 서신은 다른 경로를 따라 두 종류의 시민이 있음을 이야기 합니다: 이 삶에 속해 있고 앞으로 할 인구센서스에 기록될 시민과 - 그리고 “천국”에 속하는 또는 아마 하나님 왕국에 속할 시민입니다.

헤브루 사람들을 위한 서신은 다시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신앙을 갖는 방식으로 건설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할 미래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경우가 이 방식을 만듭니다. 그들은 그들이 갈곳을 모르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들은 “더 좋은 나라”를 찾습니다 - “에피슬의 작가는 “천국”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결코 도착하지 못하지만 살짝 엿봅니다. 그들은 외국의 땅에서 이방인 같이 삽니다. 그들은 멀리서 살짝 보여진 “더 좋은 나라”를 환영합니다.

조금 후에 우리는 마이클 얼의 찬송가를 부릅니다: “ 이제 시간의 사이에서”. 가사들은 누가의 시간의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재, 시간의 나뉘어짐을 깨닫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찾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기다리고 행동을 준비하고, 자비의 선물, 이해, 정의 그리고 희망을 보여줍니다.

찬송가 가사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우리는 하루 또 그 다음날을 살아내고, 우리가 큰 공동체, 문화적인 그리고 인종적인, 의 이야기에서 우리의 역을 맡으면서 그날들을 다른 사람들의 삶과 이야기에서 뜨게질 합니다: 우린 전체 인류의 시대에 작을 수도 있는 우리의 부분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누가와 히브루인들에 대한 사도들의 이야기가 믿어진다면 이 모든 것은 “기다림”의 게임입니다.

찬송가 가사에 주의를 기울이며 아마도 장래에 게랄드 휴가 놀라운 하나님에서 얘기한 영적인 연습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시계의

어느곳에 시계바늘을 걸려고 할까요? 여러분의 나이와 가족 또는 일에서의 상황은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그리고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응답에 대해서 더 생각해 보세요. 일단 그것을 할 바로 그 시간이었고, 그러나 지금, 그 신앙을 위해서, 그 약속에 대해서 이것을 할 바로 그 시간이라는...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이 일을 하면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이것을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전기나 자서전이 무엇인지 알겁니다. 마이클- 우리가 앞으로 부를 찬송가의 작곡가- 은 새단어를 만듭니다: 신앙고백기. 앞의 글자는 그리스어인 하나님에서 왔습니다. 신앙고백기를 작성하는 방식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을 적는 방식입니다. 이것을 하고 하나의 방식이 알려진 사람은 신약성서 학자인 마쿠스 보그입니다. 그는 어느날 초교파 단체로부터 강연을 해달라고 요청을 받습니다. 이 행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에게 그가 종종 요청받는 이론과 기술적인 세부사항으로 가득찬 강연이 아닌 것으로 해달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개인적인 것, 자신의 이야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보그는 빈 종이 하나에 제목으로 “나와 예수님” 이라고 적고 시작합니다. 그는 그의 인생을 돌아보고 자신의 인생의 중요한 시점에 영향을 주었던 찬송가들, 축제들 그리고 사건들, 사람들 성경이야기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그렇게 긴 복잡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고백기였습니다 -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한가지가 시간의 여정을 거쳐 다른 것에 도달하는지 보게 됩니다.

한번 시도 해 보고 어떻게 되나 봅시다. 게랄드 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분 신앙의 여정에서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시계의 바늘을 올려봐 봅시다. 우리가 자신을 찾을 “중간의 시간”에 좀 더 생각해 봅시다.